

영화·심리학·평론 강좌 ‘인문학 사랑방’

문화창고 ‘아트시네마’

국내외 예술영화관을 찾아서



4 인천 남구 ‘영화공간 주안’

전국 첫 자치단체 운영 예술영화관

남구청 극장 공간 매입...4개관 운영

‘시네마프랑스·차이나 인천’ 등 인기

‘스크린 잉글리쉬’ 등 프로그램 다채



2007년 문을 연 인천 ‘영화공간 주안’은 개관 당시 1개관에서 지금은 4개관을 운영중이다.

영화란 보는 공간이 아니다. 영화 속 주인공의 심리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와 이야기를 나누고, 영화 평론 쓰기 강좌도 듣는다. 프랑스 영화제, 중국 영화제 등 다양한 기획전은 즐거움 중 하나다. 로비 카페에서는 부담 없이 차 한잔을 마실 수 있다.

인천시 남구에 위치한 ‘영화공간 주안’은 지난 2007년 문을 열었다. 운영 주체는 남구청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 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예술영화전용관이다. ‘예술영화’에 대한 인식이 미미했던 시절, 구청 차원에서 예술영화 전용관을 운영하더니 부럽기도 하고, 호기심도 일었다. 최근 다양성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화공간 주안’은 수많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영화공간 주안’이 자리한 남구는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동네였다. 남구가 미디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꾸리기 시작했고, 2003년부터 주안미디어 축제를 시작했다. 영화관 개관은 2006년부터 준비했다. 초창기 1개관이었던 스크린은 현재 4개관으로 늘었고, 지금까지 9년간 다녀간 관객은 43만 여명에 달한다.

영화관은 대형 상가 건물에 자리하고 있다. 남구청은 처음부터 영화관 공간을 임대하는 대신, 아예 매입을 해 하드웨어를 구축했다. 임대할 경우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지원금이 삭감되고 사업이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속성’을 갖기 위해 매입을 했고 단체장이 여당과 야당으로 계속 바뀌었지만 영화관은 줄곧 시민들과 함께하며 발전하고 있다.

주안은 대부분 단관으로 운영되는 여타 예술전용극장과 달리 98석부터 150석까지 모두 4개관을 보유하고 있어 최근 쏟아지는 다양한 영화들을 소개하는 데 유리하다. 여기에 다목적 소극장인 ‘컬처팩토리’까지 갖춰 풍성한 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 영화관 운영비는 5억 3000만원 수준으로 관장을 포함한 직원(7명)들의 인건비를 포함한 액수다. 초창기에는 3억 50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책



‘영화공간 주안’의 로비

정됐으며 매출은 3억원 정도다.

‘영화공간 주안’의 정기 회원은 1만 2000여명에 달하고 관객 수도 매년 증가 추세다. 상영작은 예술영화 중에서도 ‘소고하고 파격적인’ 작품 대신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가족 영화와 종교 관련 작품을 자주 틀고 주 관객층으로 떠오른 50~60대 여성 관객들의 눈높이에도 맞추고 있다. 올해 흥행작 중 하나인 ‘태풍이 지나가고’ 등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작품 등이 대표적이다.

또 관객들을 위해 영화 티켓 할인 혜택을 주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도 한달에 한번이 아닌, 매주 수요일로 확장해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기획전과 프로그램은 ‘영화공간 주안’의 핵심 콘텐츠다.

특히 42회 행사를 마친 ‘사이코 시네마 인천’(매달 네번째 주 토요일)은 독보적 프로그램이다. 김정옥 영화공간주안 관장과 정신과 전문의 홍상의 원장이 함께 정신 분석과 심리학을 바탕으로 영화의 깊이와 의미를 나누는 시간이다. 지금까지 데이비드 핀처의 ‘파이트 클럽’, ‘죽은 시인의 사회’ 등 다양한 영화가 분석 대상이 됐다.

그밖에 인천 אליאנס프랑스제와 함께 매년 4차

레씩 진행되는 ‘시네마프랑스 인천’ 행사는 영화 상영 뿐 아니라, 전시도 함께 아우러지는 문화예술축제다. 지난 7월부터는 주한중국문화원, 인천 남구청과 함께 ‘시네마차이나 인천’도 시작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다양한 중국영화를 상영한다.

그밖에 34화째를 맞은 ‘인천시네마테크’는 주안과 인천시네마테크협회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특별상영회로 일반 영화관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단편영화, 실험영화 등을 만날 수 있다.

무료로 진행되는 예술영화 워크숍도 인기가 높다. 지금까지 ‘예술영화 수입·배급과 홍보 마케팅’, ‘예술영화관과 작은 영화제’를 주제로 강좌를 열었으며 전체 강의를 영어로 진행하는 ‘스크린 잉글리쉬’,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화 평론 쓰기’ 등이 주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영화공간 주안 다양성 영화평론집’도 발간했다. 단순히 영화 감상을 넘어 ‘영화공간 주안’은 ‘인문학이 흐르는 공간’으로 그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

영화관은 청소년들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취재를 간 남구청 환경보존과 주관으로 청소년들에게 환경 관련 영화 상영과 교육이 진행중이었다.

“각 영화관마다 자신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획이 성공하려면 우선 자신들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 무엇보다 꾸준히 진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지만 영화관 상영작은 노터치입니다. 남구청과 협약을 맺을 때도 상영작은 프로그램에 선정한다고 뜻을 바랐습니다.”

개관 준비부터 참여한 김정옥 관장은 “지자체가 영화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극장 운영이 변하지 않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현대적 남종화...수묵과 채색의 만남

박종석 개인전 ‘若無光州’...15~30일 금봉미술관

남도 정서와 얼을 작품에 담은 석주 박종석 작가가 ‘若無光州’(약무광주)를 주제로 금봉미술관에서 15~30일 개인전을 연다.

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일상에서 만난 자연과 인물을 소재로 그린 작품을 선보인다. 전 시작에서는 수묵과 채색을 혼합해 남종화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시각을 가미한 것을 엿볼 수 있다.

작품 ‘춘산화연지곡’(春山火燃之曲)은 무등산과 김덕령 장군을 소재로 작업한 8미터 길이 대작이다. 무등산 위로 굳건하게 자리잡은 소나무 줄기에서 호남인 기개가 느껴진다.

‘무등산 10경’도 길이가 5.5m에 이른다. 푸른 밤하늘에 보름달이 떠있는 가운데 달빛을 머금은 천황봉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긴다.

화폭에 뿌려진 별빛은 희망과 평화를 상징한다. 또 무등산을 바다에 비유한 ‘신새벽 출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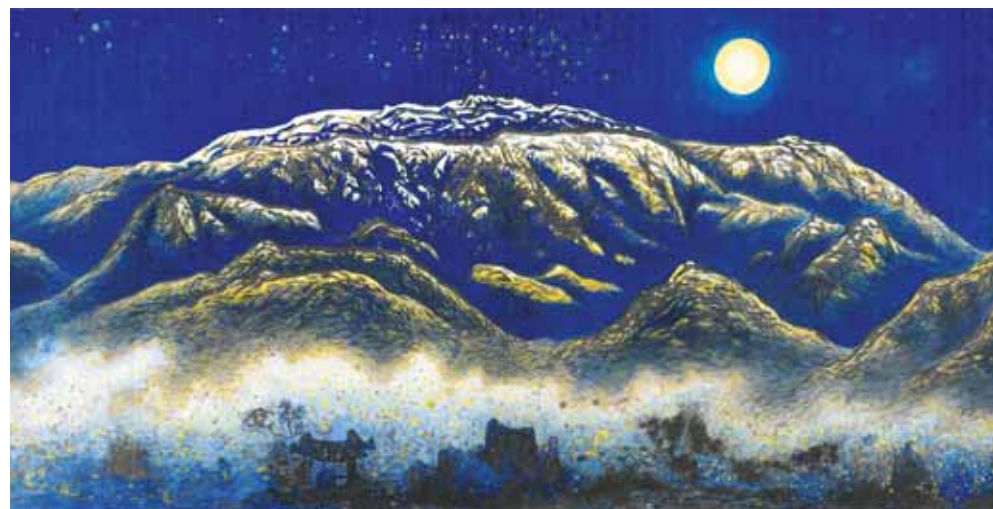
화면을 반으로 나눠 색채를 대비시킨 ‘삶이 순간인 것들’을 출품한다.

그밖에 지인들을 붓으로 속사(速寫)한 인물화를 비롯해 학술세미나, 유적지 답사현장 등 다양한 실사작품도 만날 수 있다. 등산객이 등장하는 ‘옛날의 무등산’에서는 산을 좋아하는 작가마음이 전해진다.

박씨는 호남대 미술학과와 조선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계 오지와 문화유적을 찾아 기록 스케치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광주일보 기획시리즈 ‘광주로 떠나는 그림편지’ 1기 작가로 참여해 다양한 나라를 소개했다.

지금까지 개인전 16회, 초대전 6회, 단체전 200여회에 참여했으며 ‘부러진 대나무-양평손의 삶과 예술’, ‘히말라야 14좌 화보집’ 등을 펴냈다. 문의 062-269-998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무등산 10경’

광주여성재단 ‘여성 경력유지 모니터링’ 포럼

오늘 재단 강의실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은 15일 오후 2시, 광주여성재단 8층 강의실에서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광주지역 정책현장 모니터링’ 포럼을 진행한다.

재단은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지난 8월부터 광주, 인천, 대구, 충북, 전남 지역에서 각각 정책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지방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실태를 점검하고 ‘여성고용’

과 ‘일·가정양립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개선안을 모색했다.

포럼은 김미경 광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강현아 광주여성재단 정책연구실장의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광주지역 정책현장 모니터링’ 발표에 이어, 김보현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진수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이병훈 노무법인 잡터 노무사, 황인자 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각계를 대표, 정책개선을 모색한다. 문의 062-670-05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황영성·박석규·송웅·박동인·박종수·신동원·박성현·전희진·정윤태

원로작가 9인 특별전

기간: 2016. 10. 11(화) ~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박물관갤러리

☎ (062) 222-0072 (예술의거리 서문입구)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제2016-00592호(반) (2016.09.22)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16-06호(2016.09.20)

창립 34주년 특판 300억 한도

(한도소진시 조기 마감)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1년 복리정기예금 **2.40%**

(연이율, 월복리, 세전이율, 만기이자지급)

부동산담보대출!!

신축자금대출!!

할인어음!!

더블저축은행

■ 본점 (062) 223-5506 ■

구도청! ● 중앙파출소 광주세무서

● 국민은행 ● NC WAVE

더블저축은행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